

「항공·우주용 국산 탄소복합재 기술개발·인증 로드맵」 수립

- 제2차 「탄소복합재 점프업 파트너십」 회의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5월 22일(수)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제2차 「탄소복합재 점프업 파트너십*(이하 파트너십)」 회의를 개최했다. 파트너십에서는 작년 7월부터 항공·우주 분야 탄소복합재 15개 수요·공급 기업 등이 참여하여 수립한 「항공·우주용 국산 탄소복합재 기술개발·인증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 기업, 연구소, 유관기관의 역량을 결집시켜 탄소복합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회의체

로드맵은 지난해 7월, 제1차 파트너십 개최 시 체결된 업계 간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4개의 수요기업, 한국카본 등 11개의 탄소소재 기업이 참여해 수립하였다. 로드맵은 우리 탄소복합재가 항공·우주분야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과 인증획득 계획을 국내 항공·우주 기업의 차기 제품* 개발일정에 맞추어 담고 있다.

* 수요기업(제품) : A社(차세대 무기체계), B社(차세대 항공기 구조물), C社(소형발사체), D社(AAV, 수송기)

지금까지 우리 탄소복합재는 항공·우주분야에 사용된 실적이 부족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금번 수립된 로드맵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인증을 획득하면 우리 탄소복합재의 해외진출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국내 수요기업의 제품 개발 계획에 맞추어 국산 탄소복합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탄소복합재 기업의 기술개발 및 인증획득을 지원하고 부품의 실증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오늘 발표한 로드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파트너십 내에 운영 중인 ‘우주항공·방산 분과’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업계가 수립한 탄소복합재 기술개발·인증 로드맵을 통해 우리소재가 항공·우주용 첨단분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정부도 로드맵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첨단산업정책관 섬유탄소나노과	책임자	과 장	김종주 (044-203-4280)
		담당자	사무관	최영빈 (044-203-4286)

1. 행사 개요

- (일시/장소) 5.22.(수) 14:00~15:30 / 한국과학기술회관 11층(서울 강남)
- (참석자)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유관기관 및 탄소복합재 수요·공급 기업 주요인사
 - * 유관기관(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소재·부품 공급사(효성첨단소재, 국도화학, 한국카본 등), 수요기업(KAI, 대한항공 등), 민수 항공용 복합소재 시험·인증기관(항공안전기술원, KTL)

2. 로드맵 발표

- 항공·우주용 탄소복합재 활용실적 확보를 위해 탄소복합재 기업 및 KAI 등 국내 우주·항공 기업이 수립한 탄소복합재 로드맵 발표
 - 우리부 지원하에 업계가 수립한 탄소복합재 로드맵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정부 및 업계가 함께하는 회의에서 로드맵 발표 추진

< 참고: 항공·우주용 국산 탄소복합재 기술개발·인증 로드맵 개요 >

- (추진 경과) '23.7월 제1차 탄소복합재 점프업 파트너십 계기,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업계 간 MOU를 체결하고, 5차례 회의 등을 거쳐 로드맵을 마련
- (참여 기업) 우주·항공 부품 및 완제기 기업·연구소, 탄소복합재 기업 총 15개 기관
 - * KAI,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 국방과학연구소(ADD), 효성첨단소재, 한국카본 등
- (주요 내용) 국내 항공우주 완제기·부품 개발 일정, 완제기·부품에 적용되기 위한 국산 탄소복합재 요구 성능, 기술개발/인증 필요 일정 등

3. 진행 순서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 ~ 14:05 (05')	• 모두 발언	산업정책실장
14:05 ~ 14:15 (10')	• 탄소복합재 로드맵 발표	탄소진흥원
14:15 ~ 14:25 (10')	• 탄소복합재 기업의 준비현황 및 로드맵 이행 계획 - 한국카본, KAI	한국카본 KAI
14:25 ~ 15:25 (50')	• 기업 건의 사항 논의	참석자